

탈북 이주민 사회 적응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이상만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최근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탈북 이주민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 단위로 탈북하는 등 탈북 형태도 달라지고 있고 탈북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 탈북 이주민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상황을 보면 대다수가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많은 탈북 이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의 반수 이상이 현재 최저 생활 이하의 수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개인적 능력과 경쟁의 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한 사회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북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데, 특히 심한 고독감과 소외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탈북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난 7월 8일에 '하나원'을 개원하였다. 이는 탈북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 적응 교육을 보다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문 교육 기관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탈북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탈북 이주민에 대한 사회 적응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탈북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 적응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들의 생활력과 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탈북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탈북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사회 적응 교육의 첫단계에서 탈북자들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상호 연계성이 중요하며 강의 위주의 주입식이 아닌 간접적·가상적 체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탈북 이주민들의 계층별·연령별·학력별로 사회 적응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 대상을 세분화해야 하며, 대상에 따라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탈북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 적응 교육이 통일후 북한 주민들의 체제 적응을 위한 기초 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과 자료들은 통일 준비 과정의 일부로서 체계적인 축적과 정리가 필요하다.

탈북 이주민의 사회 적응 교육 운영 현황

최 근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 단위로 탈북하는 등 탈북 형태도 달라지고 있고 탈북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앞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북한체제의 통제력도 약화됨에 따라 탈북 이주민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량의 집단 탈북에 대비해 탈북 이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도 최근 탈북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그동안 보호 관찰 위주로 시행된 정부의 정책을 남한 사회의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탈북자 지원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 탈북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 적응 교육을 보다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문 교육 기관인 '하나원'을 개원하였으며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 적응 교육을 시행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탈북 이주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탈북 이주민들에 대한 기존의 지원 정책은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데 중심을 두어왔다. 이로 인해 남한 사회의 정착과 적응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들에 대한 지원도 단순히 금전적 보상 차원에 머물러온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심리적·사회적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로 정보 당국에 의해 남한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안내 차원의 적응 교육이 이루어졌다.

북한 이탈 이주민 지원법이 통과된 후 비로소 통일부의 주도로 사회 적응을 위한 시범 교육이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장소의 제약과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부재로 체계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하나원 개원 후 본격적으로 실시될 적응 교육에 대비한 예비 교육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탈북 이주민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사회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본 경험이 부족하며 교육을 담당할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여러 민간 단체에서도 탈북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일부 대학 기관이나 종교 단체 등을 제외하고는 재정 부담과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그리고 운영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때문에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물론 중앙대학교 민족

통일연구소에서 지난 2년간 운영한 탈북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 적응 교육 프로그램인 '남북통합교실'은, 그 내용과 운영 방식이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독창적이고 탈북자들의 호응이 커서 정부의 종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참고 모델로서 요긴하게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 민간 단체 스스로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에는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탈북 이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정부가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화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 단체의 발굴과 육성은 효율적인 사회 적응 교육의 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앞으로 탈북 이주민들의 수가 계속 급증할 것에 대비하고 또한 통일후 북한 주민들의 새로운 시장경제체제로의 적응을 돕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 교육을 통일 준비 과정의 일부로서 간주하여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舊사회주의 국가들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방황과 혼란,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생각할 때, 통일후 북한 주민들의 체제 적응 문제는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탈북 이주민 사회 적응 교육의 통일 정책적 의미

탈북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 문제는 비록 언어와 문화가 동질적인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이주하여 적응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남북한이 동일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50여 년에 걸친 대립과 전쟁으로 인해 상호 이질화와 적대감이 심각한 지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탈북 이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나라에 적응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면도 있다. 예를 들면, 동일한 민족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접 받기를 기대하는 탈북 이주민들의 지나친 기대감이 이들의 좌절감을 크게 하는 요인이 된다.

탈북 이주민들의 경우 모두가 남북한간의 제도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이들이 남한 사회의 가치관과 이념·정치·경제제도 등을 완전히 이해하고 이러한 체제와 이념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탈북 이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체제 적응·사회 적응·심리적 적응의 기간이 필요하다.

탈북 이주민들이 남한 사회의 정착에 어

려움을 겪는 것처럼 통일후 북한 주민들 역시 신체제로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경우 탈북 주민들과는 달리 다른 사회로의 이주시 겪는 어려움은 적을 것이나 체제의 차이에 따른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간의 통일이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에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계획 경제는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될 것이며, 경쟁 원리에 기초한 가격 메커니즘의 도입, 사유재산제도의 도입, 국영 기업의 민영화 등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경제개혁이 단행될 것이다. 이러한 체제 전환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이질적인 제도와 가치관 등에 의해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체제 전환기에 북한 주민들이 겪게 될 적응 문제는 통일후 발생할 통일 비용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일 비용의 발생요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통일후 북한 국영 기업의 도산에 따라 발생하는 대량의 실업과 이를 위한 생활 보조, 그리고 실업 근로자들의 재교육과 재취업에 드는 비용이다. 만약에 통일후 체제 적응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적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업 전환에 드는 비용이 적게 될 것이며 따라서 통일 비용도 적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탈북 이주민들에 대한 적

용 교육은 통일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체제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되며, 동시에 통일후 우리 민족 경제가 부담해야 할 통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에도 기여하게 된다. 탈북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 적응 교육이 통일후 북한 주민들의 체제 적응을 위한 기초 모델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의 운영 경험과 자료들은 통일 준비 과정의 일부로서 체계적인 축적과 정리가 필요하다.

탈북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 현황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 이주민들의 수는 1999년 현재 765 명으로 199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탈북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탈출 동기나 탈출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90년대 이전의 탈북자들의 경우 거의가 정치적 이유로 개별적으로 탈북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탈출 동기도 굶주림 등 경제적 이유와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탈북 형태도 개인에서 집단적 탈출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신분도 일반 주민에서 고위층까지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족 단위의 탈북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경우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으

며 체제 이완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탈북 이주민들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표 1〉 참조).

한편, 탈북 이주민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상황을 보면 대다수가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50 년간의 분단 상황은 사회 구조와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남북간의 이질화를 심화시켰기 때문에, 획일화된 사회주의체제 하에서 살아온 탈북 이주민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지 못하며 또한 직장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장에 일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그리고 업무에 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지 못해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많은 탈북 이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의 반수 이상이 현재 최저 생활 이하의 수준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개인적 능력과 경쟁의 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경제 활동에 익숙하지 못한 점과 재산 관리 능력 부족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북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데, 특히 삼한 고독감과 소외감 등

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은 경쟁 능력이 취약한 탈북 이주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멸시와 탈북 이주민들이 갖고 있는 강한 자존심간의 마찰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탈북 이주민들의 적응력 평가

탈북 이주민들의 단계별 심리 변화

탈북 이주민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되는데, 탈북 이주민들과의 면담 내용을 요약하면 〈표 2〉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탈북 이주민들의 적응력 평가

탈북 주민들의 적응력을 평가해보면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경쟁 능력 면에서는, 전문 지식과 남한 사회에 대한 일반 상식이 약하고 경쟁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다(예, 비상근 근무자가 많음). 또한 도전적이지 못하고 보수적이며 연령 등에 따른 대우와 대접을 받기를 원하며, 목적 의식이 약하고 피동적인 자세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판단력 면에서는, 행동이나 표현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힘들어 하며 다양성을 복잡하고 문란한 것으로 보는 보수 성향이 높고, 양면성과 배타적 인식이 남아

<표 1> 북한 이탈 주민 입국 및 거주 현황

<국내 입국 총괄 통계>

구분	총 입국자	현재 국내 거주자	사망	이민	1969년 이전	70년대	80년대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인원	969	765	169	35	489	59	63	9	9	8	8	52	41	56	86	72	21

<입국 당시 유형별 통계>

<성별>	1989년 이전	1990년 이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남	561	281	9	9	6	8	48	35	44	56	54	12
여	46	81	0	0	2	0	4	6	12	30	18	9
<출신지>	강원	경기	황해	평양	평안	자강	양강	함경	기타			
1989년 이전	28	43	106	21	159	4	2	104	140			
1990년 이후	18	3	27	70	68	12	14	129	21			
<직업별>	1989년 이전	1990년 이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벌목공, 노동자, 농장원	94	178	1	4	3	3	37	24	28	36	36	14
군인	244	25	3	0	0	1	3	6	5	1	5	2
해외 상사원, 외교관 외화벌이	3	24	3	1	1	1	1	3	3	8	2	1
당·정무원, 교사	11	42	0	3	3	1	5	4	5	14	5	2
학생, 무직, 기타	113	90	2	1	1	2	6	3	14	35	24	2
자수 간첩, 전향	142	2	0	0	0	0	0	1	1	0	0	

<입국 당시 연령별 통계>

<연령>	10세 미만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89년 이전	0	107	289	127	57	22	5
1990년 이후	21	24	112	130	35	26	14

자료: 통일부(99년 2월말 기준).

〈표 2〉 탈북 주민들과의 면담 내용

시기	환경	심리 변화
탈북 전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의 위협 · 극빈 상황 · 남한에 대한 인식 미약 - 정보: 비체계적 · 단편적 - 기대: 환상적 - 적응: 피동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초적 욕구 - 생명 부지: “목숨만 건지면 된다” - 최저 생계: “하루 세끼 먹을 수 있으면 된다” · 환상적 욕구 - “가기만 하면 잘 살 수 있다” - “큰 돈 받고 평생 평안히 산다”
보호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의 안정 · 통제 · 문화적 충격 - 정보: 무지향적 습취 - 기대: 적극적 - 적응: 의존적 · 객관적 평가 개시 - 사회 반응 냉담 - 신분의 미변화 - 평균적 ‘대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의 자유 욕구 증대 - “빨리 나가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 물질 문화에 대한 동경 -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 자신에 대한 과대 평가 - “나는 저 양반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다” - “저 양반이 말한 것은 틀린다” · 정치 · 사회적 욕구 증대 - 영웅 · 부자 대접받기 원함
정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에 대한 환경 변화 - 경찰의 보호 · 경제적 충격 - 수입: 미약 - 부수입: 많음 - 소비: 중상층 수준, 충동적 소비 성향 - 능력: 전문 지식 취약 · 경쟁적 환경 - 학벌 위주 인사 · 대우 - 신분의 상대적 저하 - 탈북자에 대한 몰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에 대한 의존감과 부담감 공존 - “출퇴근을 담당 경찰이 해준다” - “내가 죄인이나 밤낮으로 따라다녀” · ‘부’에 대한 강한 욕구 증대 - 강연 · 간증 · 포상에 대한 욕구 증대 · 사회에 대한 불만 증대 - “목숨 걸고 온 사람한테 대접이 다냐” - “편안히 살려고 왔지 막노동하러 왔나” · 경쟁에 대한 기피 - “영어 모른다고 사람이 아니냐” - “컴퓨터에서 밥이 나오냐” - “저렇게 힘들게 일해서 뭐해”

있기 때문에 판단력에 혼란이 오기 쉽다. 자기 억제력 면에서는,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며, 특히 자존심의 손상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며, 통제는 싫어하나 의존심은 강하다.

탈북 이주민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앞에서 언급한 특성을 감안할 때, 탈북 이주민들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지원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 사회에서 굳어진 관습과 인식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탈

북 이주민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으로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일반 교육, 전문 교육, 심리 및 인성 교육, 사후 관리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방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 전체의 유기적 역할 분담의 필요성으로 정부와 민간 단체의 역할 분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탈북 주민 개개인의 능력과 경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본적인 사회 적응 교육을 담당하고, 전문적인 것은 민간 사회 단체가 분담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목적 및 동기 유발의 필요성으로 탈북 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그들의 위축된 자존심을 살리면서 삶의 목적을 유발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탈북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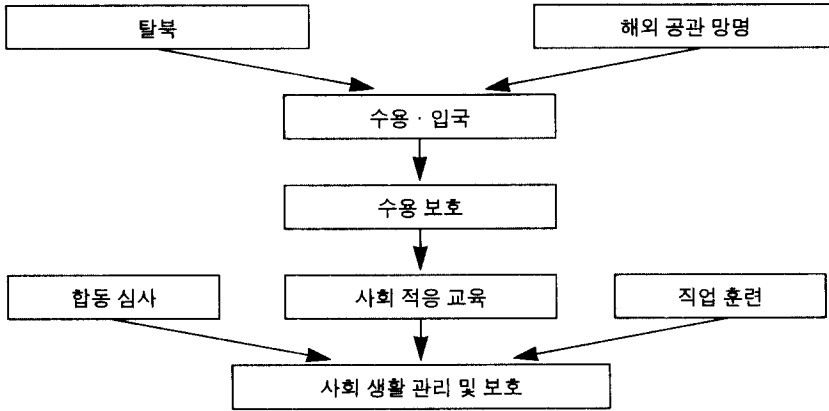
첫째, 탈북 이주민의 수용과 정착 지원에 관한 기본 원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탈북 이주민에 대한 지원 절차는 현재 세 단계로서 첫째는 탈북자들의 망명 요청에 대한 수용 절차, 둘째는 남한 이주시 수용 시설에서의 보호 기간, 셋째는 수용 시

설에서 퇴소한 후 정착 지원과 사후 관리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그림〉 참조).

둘째, 탈북 이주민들을 위한 정착 지원 정책은 남한 내의 복지체도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탈북 이주민들의 생활력과 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북 이주민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단기간에 끝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그들이 남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직업 교육과 취업 알선, 그리고 심리적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적응을 위한 효율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 프로그램에 따라 체계적인 사회 적응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탈북 이주민을 위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간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탈북 주민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 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능력있는 민간 단체들을 발굴 육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 이주민 정책이 성공을 거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와 민

〈그림〉 북 이탈 주민 지원 절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북한 이탈 주민 남한 수용 및 적응 절차」.

간 단체의 협조체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 적응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와 개선 방향

현재 통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탈북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 적응 교육의 내용은 초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 적응 프로그램, 남한 사회의 이해를 위한 남한 사회 이해 교육, 사회 생활을 위한 생활 안내 교육, 그리고 직업 교육 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단계별 교육은 탈북 이주민들이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정보와 생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전체적 구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선될 점이 많이 있는데, 그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적응 교육의 첫단계에서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이다. 기존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의 탈북 이주민들이 탈북 초기 단계에서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경우에도 심리적 불안정과 피해 의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심리적 불안정이 남한 사회의 정착과 남한 주민들과의 원만한 인간 관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탈북 초기에 심리적 안정을 도와줄 수 있는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심리 적응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구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체류 경험에 비추어볼 때, 다른 체제하 새로운 사회와의 첫 접촉은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며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상식이 붕괴되고 가치관이 흔들리게 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진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남한 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면 가치관의 혼란과 심리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활 적응 교육의 가장 기초 단계에서는 탈북 이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위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심리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는 외국 사례의 활용과 기존의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평생 교육 형태로 장기적·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사의 경우에도 심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이해가 깊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심리적 적응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사회 적응 교육의 초기 단계에서는 심리 적응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탈북 초기의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심리적 안정을 찾은 후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상호 연계성

이 중요하며 강의 위주의 주입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남한 사회의 이해를 위해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를 짧은 시간에 일괄적으로 소개하는 경우, 남한 사회에서 생활 체험을 해보지 못한 탈북 이주민들이 단기간 내에 그 다양한 정보를 소화해내기가 힘들다. 특히, 일방적으로 강의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를 갖고 남한 사회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물론 남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견학 과정도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북한 주민들이 견학을 통해서 남한 사회를 이해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남한 사회 이해 프로그램의 경우 강의나 견학을 통한 일방적 정보 전달의 차원이 아닌, 남한 사회의 여러 계층 사람들과의 접촉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남한 사회를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현재 탈북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 적응 교육의 한 전형이 되고 있는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의 '남북통합교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 등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통합교실에서는 탈북 주민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탈북 주민들과 남한 사회의 여러 계층의 주민들로 통합 교실을 구성하여 남북한의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남한 사회의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그 분야에 대한 남북한 사회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를

한다. 그리고 그 후에는 組를 나누고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탈북 주민들과 남한의 주민들이 함께 남북의 차이점에 대한 토의를 하고, 이를 통해 남한 사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의 남북통합교실 운영 경험으로 볼 때, 탈북 이주민들과 남한 주민들이 통합교실을 구성하고 공동 토의를 통해서 남한 사회를 이해시키는 것이 강의 방식에 의해 남한 사회를 소개하는 방법보다는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남북통합교실 참여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볼 때도 이런 방법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런 방식의 장점은 탈북 이주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교육에 대해 흥미를 느끼게 한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강요된 생활 문화와 사상 교육을 받아온 탈북 이주민에 있어서, 강요된 교육은 염증을 느끼게 하기 쉽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나 단순히 참관자로서 남한 사회를 들여다보는 현장 견학 방식보다는, 여러 계층의 남한 주민들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남한 사회를 이해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만약에 보안 문제 등 여러 제약때문에 통합교실을 구성하기 힘들 경우에는 대학교나 탈북 주민 교육에 경험이 있는 민간 단체 등과 공동으로 주말의 특별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셋째, 생활 안내 교육이 지식 전달식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탈북 주민들이 남한 사회 정착 후에도 가장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은 남북한사회체도의 차이에서 오는 생활 방식의 차이점이다. 예를 들면, 함께 탈북해온 한 가족의 경우 남한의 교통 신호체계를 이해하지 못해서 일주일간 교통 신호대 앞에서 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구경했다고 한다. 따라서 생활 교육은 지식 전달 차원으로 이루어져서는 그 효과가 없으며, 모든 교육이 실천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탈북 이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남한의 사회 생활에서 필요한 교육·법률·결혼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단순히 전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본인이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한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의결혼식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가상적으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과정과 이 경우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탈북 이주민들이 가상 드라마의 주인공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상황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다.

탈북 이주민들을 위한 생활 안내 교육이 지식 전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남한

사회에 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탈북 이주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기 보다는 가장 필수적인 정보만 선별하여 실천적 방식으로 생활 안내를 하는 것이 좋다.

넷째, 기본 교육 과정의 수료 후에 보수 교육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초기 정착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며 남한 사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탈북 이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짧은 기간에 제공하면, 이 정보들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남한 사회를 피상적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정착 초기에 남한 사회에 대해 곡해를 하는 경우 향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은 실천 위주로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탈북 이주민들이 소화할 만한 분량만 점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기초 과정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남한 사회에서 생활한 후 보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탈북 이주민들을 일반화시켜서는 안되며 계층별·연령별로 사회 적응도에 따라 몇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탈북 이주민들의 경우 북한에서의 생활 환경, 지식 수준, 사회적 지위, 탈북 과정 등에 따라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 속도가 다르다. 예를 들면, 북한의 고위층의 경우는 남한 사회의 물질 문화에 대한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북한의 일반 근로자 출신보다는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이 빠를 것이며, 지식인의 경우가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보다 적응이 빠를 것이다. 한편, 탈출 과정의 차이에 따라서도 적응도가 다르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넘어온 경우보다는 중국에서 일정 기간 체류한 후 남한에 온 경우가 시장 기능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나 적응이 쉽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도 적응도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연령이 젊을수록 새로운 제도나 사회에 대한 고정 관념이 약하기 때문에 적응력이 높다.

이와 같이 탈북 이주민들의 출신 배경의 차이에 따라 사회 적응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 대상을 세분화해야 하며 대상에 따라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탈북 주민 전체를 일반화시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일괄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그 효과 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 강사 선정시 유의할 점은 남한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보다는 먼저 북한사회주의 체제의 관습과 관행, 그리고 북한 이주민들의 의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강사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전문가를 강사로 선

정할 경우,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북한의 체제와 관습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주의체제 전문가들 가운데서 강사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탈북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 적응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먼저 그들의 심리적 상황과 의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육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탈북 이주민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과 자연스런 대화가 가능한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적응 교육의 성공 여부는 프로그램의 내용 그 자체보다도 누가 그것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 강사의 양성은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탈북 이주민의 사회 적응 교육 사례: 중앙대학교 남북통합교실

중앙대학교의 민족통일연구소에서 운영한 '남북통합교실'은 대학 연구 기관이 탈북 이주민들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종합적 사회 적응 프로그램으로서, 탈북 이주민들을

위한 사회 적응 교육의 기본적 참고 모델이 되고 있다. 그 내용과 특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내용

남북통합교실은 탈북 이주민들이 남한 주민들과 함께 모여 남한 사회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남북한 사회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남한 사회의 적응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¹⁾

전체 프로그램은 개강 모임, 강의, MT, 수료식 등 매주 1 회씩, 총 12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의 내용은 남북한체제 전반에 관한 영역들을 다루고 있다. 진행 방식은 매주 남한 참가자 1 인과 탈북 이주민 1 인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남북한의 사례를 각각 발표하고, 이후 탈북 주민들과 남한 주민들을 혼합하여 조를 구성하여 주제에 대한 조별 토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

주제 발표는 남한 참석자의 경우는 관련 기관 연구원·교수 등의 전문 연구자가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탈북 이주민들의 경우는 회사원, 학생, 가정주부 등 다양한 배경의 탈북 주민들이 담당한다. 1박 2일의 MT에서는 남북한의 실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남북한 주민들의 경제 생활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

1) 이상만(1997), 「중앙대 체제적응연구소에서 남북통합교실 소식지」, 민족통일연구소 참조.

〈표 3〉 남북통합교실의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내용	
1주	개강 모임, 상호 소개 및 남북의 노래 비교 및 서로 배워주기
2주	남북한의 이질화 및 체제 비교, 남북한체제의 차이점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남북한 주민 생활의 주요 차이점
3주	남북의 사회·법률제도 비교
4주	남북의 정치제도 비교
5주	남북의 경제 생활 비교
6주	남북의 가정 생활 비교
7주	남북의 문화 생활 비교
8주	MT
9주	남북 주민 의식의 차이점
10주	남북교육제도의 차이점
11주	참여자에 의한 교육 성과 평가 및 토론
12주	종강 세미나: 탈북 주민들의 사회적응 교육의 방향

해서 남한 가정의 가계부와 북한 가정의 가계부를 참여자가 함께 토론을 통해서 작성해 보기도 한다. 그리고 남북한 사회 생활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에서의 여행 계획을 함께 세워보는 프로그램 등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서 탈북자와 남한 참가자들은 서로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경험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참여자 모두가 양 체제의 차이점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시행된 남북통합교실의 프로그램 내용은 〈표 3〉과 같다.

프로그램 특징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을 비롯한 통합

교실의 전반적인 운영은 탈북 이주민들과 남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의 책임자인 운영부장과 진행부장은 남한 사회의 정착에 성공한 기존의 탈북 이주민들이 맡는 것이 특징이다. 남북통합교실은 1997년 3월 시작 이래 100여 명 이상의 탈북 이주민들이 참여하였는데, 참여자 가운데 다수는 남한 사회에 온 지 6개월 미만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통합교실에 참여한 남측 참가자는 학생·교수·회사원·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남북통합교실의 특징은 첫째, 탈북 이주민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남한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현재 탈북 주민은 800명 미

만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때문에 그들은 남한 주민들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남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식되기 보다는 북한에서 온 손님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남한 주민들의 인식이 탈북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통합교실은 탈북 이주민들과 남한 주민들과의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통합교실의 프로그램은 남한 사회의 실생활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식 전달도 탈북 이주민들에 대한 일방적 강의가 아닌 남북 주민들의 상호 토론을 통해 남북의 사회 생활의 차이점을 깨닫게 함으로써 탈북 이주민들이 스스로 남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셋째, 남북통합교실의 운영에 탈북 이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탈북 이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실제 프로그램 진행도 대부분 탈북 이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도 남한 주민과 탈북 이주민들이 동등하게 서로의 체제를 배우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탈북 이주민들을 단순히 피교육 대상의 위치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자로 만들어서 그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남한

사회에서 손상된 자신감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통합교실은 교육을 통해 탈북 이주민들에게 남한 사회에 대한 지식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남측 주민들의 북한 주민 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북한 가정의 '가계부 쓰기'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상을 접한 많은 남측 참여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이런 계기를 통해 북한의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바꾼 경우도 많았다. 특히,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은 젊은 학생들의 충격이 컸다는 점에서, 남북통합교실은 신세대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새로운 통일 교육의 모형을 제시했다고 할 수가 있다. ㉠